

박경리 『노을 진 들녘』에 나타난 타자화된 여성의 생존과 연대

서 여 진*

요약

『노을 진 들녘』은 ‘근친상간’이라는 당대 대중소설의 선정적인 문법을 따르고 있지만 이러한 이야기의 배면으로 박경리가 지닌 생명의 능동성에 대한 단초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근대화와 보수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전후 사회에서 제도 바깥의 인물이자 야생의 생명력을 지닌 여성 주인공 주실은 세 명의 가부장으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그러나 전후의 국가 제도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타자화된 여성들의 도움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한다. 대중소설로 인식되었던 『노을 진 들녘』은 여주인공에게 폭력으로 작용하는 폐쇄된 공간과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가부장 중심의 사회, 허무에 빠진 남성 주인공들의 혁명의 실패와 죽음, 전후 사회의 타자화된 마녀들의 공동체를 통한 여성 연대를 이야기의 골자로 하며 이러한 내용은 『노을 진 들녘』을 통속적 대중소설로써만 소비할 수 없게 하는 지점이다. 무엇보다 생명력을 상징하는 주실이 타자화된 여성들과 연대하면서 끝까지 생존하게 된다는 결말은 이후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박경리의 생명 사상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타자화된 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생존 서사는 혁명을 기점으로 구세대의 몰락과 신세대의 출현을 제시하는 이전 세대의 여성작가나, 아프레걸의 허무와 일탈을 그린 이후의 여성작가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후를 관통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히 왜소해진 인간 실존의 죽음과 허무로 일관했던 동시기의 남성작가들과도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전후 문학사 안에서 종종 단독자적 존재로 인식되었던 박경리만의 문학을 문학사의 지형 안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주제어: 『노을 진 들녘』, 전후 사회, 근친상간, 여성 거래, 생명, 여성 공동체, 전후의 마녀

목차

1. 서론
2. 에텐의 '이브'와 도시의 '아프레길'이라는 짝패
3. 기부장의 폭력성과 여성 거래의 공식
4. 타자화된 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재생
5. 결론

1. 서론

1961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지상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다. 육촌 누이동생과의 연애 끝에 누이를 살해하고 도주 중이던 지명수배자 김원균이 철도에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월 21일 경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기사에 따르면 육촌 관계인 김원균과 김옥정은 3년간 동거 생활을 이어가다 김옥정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기자 질투를 느낀 김원균이 김옥정을 목도리로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한다. 다음날 기사에는 김옥정의 시신을 해부한 결과 두 번의 낙태 흔적은 물론, 살해되기 전 강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된다.¹⁾ 박경리가 사촌 남매간의 근친상간을 소재로 쓴 장편소설 『노을 진 들녘』을 『경향신문』에 연재한 시기 또한 1961년이다. 이 작품은 1961년 10월 23일부터 1962년 7월 1일까지 총 250회에 걸쳐 연재된다. 그런데 박경리의 수필을 통해 『노을 진 들녘』이 이 남매간의 근친상간 사건에서 작품의 모티프를 얻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

1) 「김양 교살로 판명, 해부결과 낙태한 흔적도」, 『경향신문』, 1961.1.22.

된다.

“요즘 신문에 六寸男妹끼리의 비극적인 戀愛의 終末이 보도되어 나는 그 우연 일치에 苦笑하고 있다.”²⁾

인용문은 박경리가 쓴 수필 「마지막 습작을 위해」의 일부분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촌남매끼리의 비극적인 연애의 종말”은 바로 위에서 살펴본 1961년 1월 보도된 김원균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연재장편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과 근친상간을 소재로 한 특유의 선정성으로 인해 이 작품은 그간의 박경리 문학 연구에 있어 주요 논의 대상은 아니었으며 이와 같이 실제의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비록 단편적인 메모에 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을 진 들녘』이 당시 화제가 되었던 충격적 사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주목해야할 부분은 “우연의 일치에 苦笑하고 있”다는 박경리의 말이다.

“쉽게 쓰겠어요. 어렵지않은 말로 알기 쉽게 쓰면서 藝術化한다는 게 앞으로의文學이 가야할 方向이 아닌가 생각해요……”라고 結論 짓는다.

“노을진 들녘”은 作家가 五年 전부터 구상해왔으며 아껴온 素材였는데 쓰고 싶은 충동에 못이겨 그럴 때마다 年前부터 틈틈이 써온 것 二十회가 秘藏되어 있었다.

“哀歌” “내 마음은 湖水” “銀河” “푸른運河” 등의 長篇新聞連載가 있었지만 모두 “노을진 들녘” 이후에 구상해서 執筆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노을진 들녘”이야 말로 現代文學賞과 來成文學賞에 빛나는 作家의 代表作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³⁾(강조_인용자)

2) 박경리, 「마지막 습작을 위해」, 『기다리는 불안』, 현암사, 1968, 299면.

3) 「23일부터 연재하는 노을진 들녘 -작가 박경리씨 삽화 박고석씨를 찾아서」, 『경향신문』, 1961. 10. 20., 4면.

제시된 인용문은 경향신문이 김의정의 『인간에의 길』 이후 이어지는 『노을 진 들녘』의 연재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여기서 박경리는 이 작품을 어느 층이 보더라도 쉬우면서 예술작품으로서의 수준 또한 잃지 않게 쓰리라 남다른 포부를 밝힌다. 또 『노을 진 들녘』이 앞서 발표된 일련의 작품들보다 오랜 기간 구상해 온 야심작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앞서의 수필과 위의 인용문을 종합해 볼 때 박경리는 오래 전부터 근친상간과 관련된 내용을 소설의 소재로써 고심해오던 차에 마침 관련된 문제가 사회면에서 연일 화제가 되자 “우연의 일치에苦笑”하며 용기를 얻어 작품의 발표를 결심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인 『노을 진 들녘』은 조윤아에 의해 첫 논의가 시작된 이래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2020년을 전후하여 관련 논의가 증가한 편이다. 페미니즘 리부트가 여성문학 연구 내에 끼친 영향 아래서 『노을 진 들녘』 또한 새롭게 논의의 대상으로 편입된 것이다.⁴⁾ 기존의 박경리 장편소설 연구에 정전화와 위계화의 경향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연구는⁵⁾ 이 작품을 근대성을 담지한 가부장적 남성 인물들의 여주인공 주살에 대한 폭력과 억압을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해석하거나⁶⁾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력에 대한 비판으로 읽기도 한다.⁷⁾ 또한 최근에는 작품의 배면에 제시된 4·19혁명의 의미 분석

4)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여성문학 연구는 주로 주류 문학 장르 경합하는 이질적인 여성 글 쓰기에 대한 주목과 더불어 기존 문학사에서 남성작가, 단편, 순수소설 중심으로 설정된 정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양선,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여성문학의 계보 만들기: 한국여성문학사와 여성문학 엔솔로지의 필요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5,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85면 참조.

5)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전쟁, 여성, 선정주의는 어떻게 여성문학의 전통이 되었나」, 『여성문학연구』 50,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a, 179면.

6) 이해경, 「박경리의 『노을 진 들녘』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서강인문논총』 4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15.

7) 김주리, 「195-60년대 여성 장편소설 속 남매 근친상간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00,

을 통해 청년-지식인-남성의 바깥에 놓인 여성 인물의 주체화 과정에 주목하기도 한다.⁸⁾ 지식인 남성 주체와 이와는 상반된 ‘문명 바깥’의 여성인 주인공 주실을 통해 청년-지식인-남성 주체의 폭력성과 허구성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연구의 주요 논지다.⁹⁾

기왕의 연구에서 논의된 것처럼 『노을 진 들녘』이 배경으로나마 4·19 혁명의 시위 현장을 형상화하고 있는 드문 작품 중의 하나이며, 남성 인물들의 폭력과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경리가 『노을 진 들녘』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은 좀 더 본질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인용은 그와 같은 의도를 확인하는 데 실마리가 된다.

(가) 한 사람 이상이 존재할 때 벌써 사회는 구성되고 한 사람을 넘어선 다수를 위한 제도가 성립된다. 이 **제도와 원칙을 짚어진 개개인의 욕구가 부합되지 않는 곳에 무수한 비극이 생긴다.** …(중략)… 이번 소설에 이상, 허무, 실리주의자들이 등장하고 사회와 대결한 승리와 패배, 방관의 諸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인간의 바탕을 흐르는 강물의 행로는 같은 것이 아닐까?¹⁰⁾(강조_인용자)

(나) **젊은 주인공이 젊어진 십자가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능이란 때론 아름답지 않은가. 아름다움이 합리적, 도덕적인 것과**

한국문 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8) 장지희, 「4·19혁명의 재현과 여성 시민권의 창출-박경리와 손장순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김양선, 「멜로드라마와 4·19혁명의 서사적 절함-박경리의 1960년대 대중연애소설 『푸른 운하』, 『노을 진 들녘』 다시 읽기」,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 학회, 2020b; 윤혜정, 「1960년대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청년-여성’담론 연구-『노을 진 들녘』과 『녹지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90,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9) 장지희, 위의 글.

10) 「23일부터 다음소설 연재」, 『경향신문』, 1961. 10. 21., 3면.

관계없는 일은 많다. 객관적인 이치에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나는 작품을 쓰면서 피가 철철 흐르는 수(獸)적인 아름다움을 늘 환상하였으나 그것은 소심과 표현의 미흡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宋朱實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여자는 한층 상이 짙은 야녀가 됐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얽매인 내 사고로서는 宋朱實을 대담하게 비약시킬 수 없었고 韓國의 지리나 풍습이 그것을 다분히 막았다.¹¹⁾(강조_인용자)

(가)와 (나)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박경리는 이 작품을 통해 “합리적, 도덕적인 것과 관계없는” “인간의 본능”이 사회 제도와의 마찰로 인해 빚어지는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즉 사춘기간인 운영재와 송주실 사이의 근친상간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소재를 통해 사회제도나 풍습에 의해 제어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을 그리고자 했던 것이다. (나)에 제시된 “젊은 주인공이 젊어진 십자가는 당연한 귀결이었다”라는 것은 사춘인 주실을 강간한 뒤 스스로 젖값을 치른 운영재를 두고 하는 말이며 이어지는 “인간의 본능이란 때론 아름답”다는 말은 사회제도나 규범으로 제어될 수 없는 여주인공 주실을 의미한다. 주실을 두고 “피가 철철 흐르는 수(獸)적인 아름다움을 늘 환상”했다거나 “한층 상이 짙은 야녀가 됐어야 했”다는 작가의 말은 도덕이나 합리에는 완전히 무지한, 혹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주실이 가진 본능과 그러한 본능에 충실한 주실의 생명력이 가진 아름다움을 의미한다.¹²⁾

11) 박경리, 「『노을진들녘』을 끝내고」, 『경향신문』, 1962.7.5.

12) 그러나 작가에게 내재된 “韓國의 지리나 풍습”에 대한 의식이 깊게 자리잡은 탓에 그 형상화가 만족스럽지 못했음을 작품후기인 (나)의 인용문을 통해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작가의 우려와 달리 작품은 연재 당시는 물론, 1962년 연재가 끝난 후에도 큰 인기를 끌고, 인기에 힘입어 1963년 신태양사출판국을 통해 단행본이 출간된 뒤에는 8판까지 증쇄된다. 이후 1965년 김상화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기에까지 이른다. 이 영화는 김성화 감독 외에 각본은 최금동, 주연은 엄앵란, 신성일이며 세기상사주식회사 제작으로 1965년 5월 14일 아세아 극장을 통해 개봉했다. 기록에 따르면 영화 〈노을진들녘〉은 엄앵란, 신성일 등의 청춘스타를

작품 안에서 송주실은 원시적인 생명력을 지닌 신비한 인물로 그려지며 가부장제 사회 내에 길들여지지 않는 최후의 존재로 남는다. 주실이라는 캐릭터의 이같은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주실이 이후의 박경리 문학을 이루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생명’의 문제와 결부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박경리는 일찍부터 말년까지 “생존하는 것 이상의 진실은 없”¹³⁾다고 강조해 왔다. 해방과 전쟁, 남편과 아이의 죽음을 겪어낸 작가에게 제일 무서운 진리는 생명을 지닌 것들의 생존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생존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능동성’이다. 작가는 “능동성”이야말로 “생명의 본질”¹⁴⁾이며 “삶은 능동적인 것의 표현”¹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때의 능동성이란 “막다른 골목에 가면 방향을 바꾸”는 생명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¹⁶⁾ 이러한 점을 참고할 때 『노을 진 들녘』의 주실의 생존 또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의미부여할 필요가 있다.

주실은 조부(祖父) 송 노인과 사촌오빠 윤영재, 남편인 성삼이 각각 자

기용하고 젊은 지성인들의 유입을 노렸으나 흥행에는 실패한다. 최향산, 정중화 등은 이 영화가 이복형제의 근친상간을 소재로 한 점 등으로 인해 관객에게 거부감을 일으켜 인기를 끌지 못한 것이라 지적한다. 영상자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영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나 영화 또한 소설처럼 금기의 위반을 소재로 하고 있고 이것이 흥행에는 걸림돌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근친상간 모티프와 폭력에 노출되는 주실의 비참한 삶을 다룬 소설 작품이 인기를 끈 것과는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최향산, 「문학과 영화의 랑데부-박경리 작품의 스크린 파노라마」, 『인터뷰365』, 2008.05.07.,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cxno=1032>, 2024.1; 정중화, 「정중화의 한 국영화 진기록 100년-박경리 문학소설의 영화화 퍼레이드」, 『인터뷰365』, 2019.10.02.,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cxno=89273>.

- 13)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삶의 본질적인 것,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문학이 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가 하는 얘기는 생존하는 것 이상의 진실은 없다, 그것은, 그것만이 우리가 오로지 하나 하나의 진실이고 다른 거는 모든 걸 추구해 가는 과정이에요.”

-2004년 마산MBC 창사 35주년 기념 『토지』 완간 10주년 특별대담 〈작가 박경리〉 1부 중

14) 박경리, 『생명의 아픔』, 이룸, 2008, 100면.

15) 위의 책, 123면.

16) 황호택, 「국민문학 ‘토지’ 작가 박경리, 행복했다면 문학을 꺼안지 않았다」, 『신동아』, 2004. 12.24, <https://shindonga.donga.com/culture/article/all/13/104045/1>, 2024.10.28.

신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을 극복하고 진화하여 마침내 살아남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박경리 문학 연구에서 ‘생명의 문제는 「불신시대」나 『토지』와 같이 몇몇 작품에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다. 특히 박경리가 1960년대 창작했던 다수의 신문연재장편소설들은 오랜 기간 연구에서 외면되어 오면서 당시 박경리의 생계수단 정도로 치부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 작품들이 대중연애소설의 문법을 전유함으로써 여성의 욕망과 이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적 사회와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박경리가 1960년대 왕성하게 창작했던 신문연재장편소설 속에서도 박경리의 생명에 대한 의식은 기저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노을 진 들녘』 이전에 박경리가 창작한 『애가』(1958), 『표류도』(1958), 『채귀열』(1959), 『성녀와 마녀』(1961) 등의 신문연재장편소설이 당시의 대중소설의 문법을 따르면서 제도의 승인을 받지 못한 여성인물들의 욕망과 주체성의 문제를 부각했다면 『노을 진 들녘』의 주실에 이르러 비로소 변신을 통한 생존과 생명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인물형은 『김약국의 딸들』(1962)의 ‘용란’을 거쳐 『토지』의 ‘서희’와 ‘임이네’ 등 수많은 인물에게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또한 이 작품은 근대화와 보수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전후 사회 안에서 야생의 송주실과 도시의 강일혜라는 두 여성인물이 극단적으로 대비를 이루면서도, 남성 인물들로부터 성적으로 학대받고 대상화되는 공통점을 보임으로써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특히 훼손된 주실의 몸이 일혜와 신혜 자매, 민경희 등 전후 소위 ‘마녀’로 낙인 찍힌 여성들의 도움을 통해 회복하게 된다는 데에서 여성 연대의 가능성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는 4·19혁명을 배경으로 하는 동시기의 작품이 혁명을 기점으로 신세대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구세대의 몰락을 그리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변혁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박경리는 이 작품을 통해 능동성을 핵심으로 하는 자신의 생명사상의 단초를 야생의 소녀 주실을 통해 보

여주고 있음은 물론, 그러한 자연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돌과구를 전후 사회에서 마녀로 타자화된 여성들의 연대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은 생존과 생명에 대한 강조와 여성 사이의 연대는 손창섭, 장용학 등 죽음과 허무, 인간소외에 매몰된 동시기의 남성 작가들과 다른 방식으로 전후 시기를 관통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2. 에덴의 ‘이브’와 도시의 ‘아프레겔’이라는 짝패

1959년 여름부터 1960년 4·19 이후의 여름까지가 시간적 배경인 이 작품은 서울 K공대 건축과 출신의 청년 윤영재가 머무는 서울과, 그의 사촌 동생인 송주실이 머무는 송화리의 이야기가 교차하며 전개된다. K공대 건축과를 갓 졸업한 엘리트 윤영재는 주변의 기대를 받는 청수한 외모의 청년으로, 해마다 여름이면 외할아버지 송정주와 사촌 여동생 송주실이 있는 송화리 과수원을 찾아 시간을 보낸다. 생모가 죽고 아버지 윤현국이 재혼한 후, 계모인 정 씨와 다투고 집을 나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이동섭의 하숙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윤영재는 아버지 윤현국 세대가 일군 전후의 제도 안에 안착해 있으면서도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가지며 허무에 빠져 지내고, 이러한 양가 감정을 또래와 공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한편, 영재의 외사촌인 주실은 여름마다 찾아오는 하나뿐인 사촌오빠 영재의 방문만을 학수고대하는 열여덟 살의 소녀로, 송화리 밖을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는 야생의 소녀다.

……그러나 주실은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을 조금도 우습게 여기지는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단추가 뜯어져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육이 좋은 앞가슴이 보일락 말락 하는데도 전혀 무관심이다. 나이 열여덟이면

그만한 것 해야될 때도 되었건만. 하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은행나무에 기어 올라가곤 했으니, 그래서 송 노인은 우리 집 원숭이 새끼라 불렀다.

주실은 송화리 과수원 밖의 세계를 구경한 일이 없다. 그의 친구는 거반이 동물이요, 산과 들과 물이 그가 사는 세계였다. 이를테면 일종의 원시적인 소녀라 할까, 송 노인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길러놓은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깊은 곡절이 있었다.¹⁷⁾

송화리 밖의 세계를 구경한 일이 없는 ‘원시적인 소녀’ 주실은 자기 신체의 변화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동물을 친구로 삼는 야생의 존재다. 조부인 송정주가 주실을 송화리에서만 지내게 한 이유는 문명과 결부된 송 노인의 저주에서 기인한다. 대동아 전쟁 말기, 동경의 경응대학 철학과에 재학중이던 송 노인의 아들 송진규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학병으로 끌려가고, 며느리인 주실의 어머니와, 송진규의 누이(윤영재의 어머니)가 함께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공습에 의한 열차 충돌사고로 한꺼번에 죽고 만다.¹⁸⁾ 이때 혼자 살아남은 것이 주실이다. 송진규는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귀환하지 않은 채 남방으로 갔다는 소식만이 들리고 주실은 고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어 송 노인에게 거뒀진다. 영재의 아버지인 윤현국은 아내가 죽자 정 씨와 재혼해 배다른 아들인 병재를 낳아 새 가정을 이루고 영재와는 불화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문명을 저주하게 된 송 노인은 주실마저 잃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주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문명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문제는 문명과 단절되어 살아온 소녀 주실의 야생성과 넘치는 생명력에 사촌간인 윤영재가 압도되어 본능을 억누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17) 박경리, 『노을진 들녘』, 마로니에북스, 2013, 10면.

18) 서울의 친정에서 주실을 낳은 송 노인의 며느리는 주실과 함께 시가로 돌아가기 위해, 영재의 어머니는 소학교에 입학한 영재를 서울에 두고 친정에 방문하기 위해 함께 기차를 탔던 것이다.

힘이 남아도는지 물속에서 풍덩풍덩 점프를 하며 주실은 아이처럼 장난을 치고 있었다. 물에 젖어 더욱더 핏빛을 띠는 수영복과 수정(水精)처럼 아름다운 주실의 몸에 눈부신 태양이 함박 쏟아진다. 팽팽하고 묵직한 젓가슴은 뿔 때마다 전율하듯 부르릉 떨어졌다. 그 울동은 허리께에서 엉덩이로, 그리고 미끈하게 뺨은 다리로 흘러내려 간다.

무심히 뛰노는 주실을 바라보고 있던 영재는 현기증을 느꼈다.

‘빨간 수영복이 나왔다!’

순결이 거칠어진다. 영재는 심장을 짓누르듯 모래 위에 가슴을 착 붙이고 주먹을 불끈 쥐는다. 진홍빛 수영복이 눈앞에 뱅뱅 돌고 있었다. 무르익은 사과 같은 것, 강렬한 향취. 영재는 그 진홍빛 수영복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진홍빛 수영복이 아니더라면 현기증을 느끼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희미해진 이성 속에 일어났다. 마른 입술을 헛바다으로 축이고 영재는 얼굴을 돌렸다. 성삼의 눈이 주실의 몸을 더듬고 있었다. 눈은 하나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옆얼굴이었으니까. 솟은 코, 두툼한 입술, 그 입술이 이따금 정욕적으로 실룩거린다.

영재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성삼의 뺨을 후려쳤다. 찰싹 소리가 났을 때 영재는 아찔했다

“어머! 왜 그래요?”

놀란 것은 성삼이가 아니었다. 주실이 다가오며 소리쳤던 것이다.

성삼은 굵게 꺼풀진 눈을 들고 넋 빠진 사람처럼 영재를 바라보다가 내뱉듯이,

“다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눈은 보라고 있는 것, 본능에 뚜껑을 닫아둘 순 없죠. 당신이나 나나.”¹⁹⁾

인용문은 진홍빛 수영복을 입은 주실이 ‘아이처럼 장난을 치고’ 천진하게 뛰놀며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는 장면이다. 작가는 주실이 가진 생명력과 그 아름다움을 에로틱한 방식으로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한편으로 주

19) 박경리, 『노을진 들녘』, 앞의 책, 38면.

실을 이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무지의 소녀로 형상화한다. 반면, 이를 지켜보는 윤영재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느라 현기증을 느낀다. 이는 송화리 출신의 또 다른 대학생인 성삼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희미해진 이성 속에서’도 영재는 충동의 원인을 자신의 탓이 아닌 주실이 입은 ‘진홍빛 수영복’에서 찾고 그것을 훼손하고 싶어한다.²⁰⁾ 그러나 영재가 정말로 훼손하고 싶은 것은 주실이 입은 수영복이 아닌 주실의 몸이다. 생명력을 발산하는 주실의 몸이 영재와 성삼이라는 남성 인물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욕구의 객체가 될 때, 모든 도덕적 관계의 기능은 멈추고, 다른 사람의 욕구의 객체가 된 사람은 사람이 아닌 사물이 되어 모든 이에게 사물로 취급되며 이용당한다.²¹⁾ 결국 주실의 생명력 넘치던 몸은 영재와 성삼의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

인용에서 영재가 성삼을 때린 이유는 성삼에게서 자기와 같은 욕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욕적으로 입을 씹룩이며 주실을 지켜보는 성삼에게서 영재가 느낀 혐오는 실은 자기혐오에 가까운 것이다. 혐오는 오염물이라고 여겨지며 자신과는 극심하게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타자에게서 원치 않는 가까움을 느끼는 순간, 이에 대한 거부의 반응으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²⁾ 주인택 외손과 사용인의 아들 관계로 시작해 어린 시절부터 서로 감정의 장벽을 쌓아왔으며 철두철미하게 경멸하는 사이인 김성삼과 자신의 욕망이 겹쳐짐을 확인했을 때, 영재가 성삼의 뺨을 후려친 행동은 혐오의 대상인 성삼에 대한 처벌이자 자기 처벌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기 경고에 가까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영재는 서울로 올라가기

20) 주실의 진홍빛의 수영복은 사실 영재가 사다 준 것이었다.

21)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Lectures on Ethics*, Louis Infield (tran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63, p.163. 에반젤리아 파파다키(Evangelia Papadaki), 강은교 외 역, 『객체화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점들』, 전기가오리, 2019(2판), 12면에서 재인용.

22) 마사 너스바움(Martha C. Nussbaum),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166-167면.

로 마음먹은 날 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에 놀라 속치마 바람으로 자신의 방으로 뛰어든 주실을 강간함으로써 근친상간의 금기를 깨뜨리게 된다.²³⁾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영재가 주실을 강간하기 전, 수영복을 입은 주실에게 충동을 느꼈던 혐오스러운 자신의 위반을 정화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애인인 강일해를 떠올린다는 점이다.

일해가 보고 싶어지는 밤이요. …(중략)… 지금 내 심정은 뭔가 나를 정화하고 싶은, 그런 충동 때문에 펜을 들었던 것 같소. 그만큼 이 고장의 공기는 탁하고 인간의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나를 육박해오는 것 같고 내 숨통을 막아버리는 것 같소.

자연은 무한히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신비하며 지혜롭지만, 반면 인간을 원시적이랄까 원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마력을 지닌 것도 자연이 아닐까 싶소.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의 실체를 도시에선 실감할 수 없을 게요. 그곳에서의 연애감정이란 금단의 과실을 먹은 뒤 보여서는 안 될 곳을 가린 나뭇잎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일론의 의상일 뿐이요. 그 나일론의 의상 때문에 나는 이 산야를 뒤덮은 숨막히는 본능에 구역질을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소. 추악하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소. 사랑이 없어도 생식은 가능하며 생존도 가능한 이곳 자연은 내게 심한 혐오감을 갖게 하는 동시 우리가 갈구해온 어떤 절대적 사랑에 대하여 절망감을 갖게 하고…… 아니 모멸하는, 아니 그것도 아닐 것이요. 깊고 넓은 허무의 공간에서 나는 지금 심한 고독에 빠져 있는 것이요. 서울로 내일이라도 돌아가야겠고 서둘러야겠고.²⁴⁾

23) 근친상간 문제에 포함된 남녀관계는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오빠와 누이 관계 등에 해당하며 특히 이 중에서도 오빠와 누이 관계의 근친상간 문제는 중국 서남지역 소수민족과 한국, 오키나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퍼져 있다.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1)-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 『구비문학연구』 11, 한국구비문학회, 2000, 202면.

24) 박경리, 『노을진 들녘』, 앞의 책, 49면.

지금 나는 깊숙한 숲 속이나 햇빛 쏟아지는 강변이나 그런 곳에 말할 수 없이 매혹되고 있소. 관능이죠. 동시에 그곳은 살인자의 징그러운 미소와 같이 내 목을 졸라매는 거요. 이브가 무지한 그 눈동자를 들이대는 때문이요. 주홍 빛같이…… 견딜 수가 없군.²⁵⁾

인용은 상경하기로 마음 먹은 영재가 강일혜 앞으로 쓴 편지의 일부다. 이 편지에서 영재는 원시의 상태 그대로인 송화리의 공기를 탁하고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원시성이 인간을 원죄에 빠뜨리는 자연의 매력이라는 것에 공포를 느낀다. 이러한 공포는 사촌인 주실에게서 기인한다. 그러나 사실 주실은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원죄 이전의 이브에 가까운 인물이다. 주실에 대한 욕망을 느끼는 영재가 “이브가 무지한 그 눈동자를 들이대는” 것이라 직접 묘사 하고 있는 것처럼 주실은 서사 속에서 여러 장치들 통해 이브로서 형상화된다. 그의 이름이 ‘宋朱實’, 즉 빨간 열매인 점, 영재가 주실의 주홍빛 수영복을 ‘무르익은 사과’처럼 느끼는 장면, 제목인 ‘노을 진 들녘’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이후의 에덴 동산을 환기한다는 점 등이 이를 방증한다. 선악과를 먹은 후 이브의 권유로 금기를 위반했음을 여호와 앞에서 피력한 아담처럼, 영재 또한 자신의 과오를 주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주실을 강간한 후 곧바로 송화리에서 도망쳐 서울로 올라온 영재는 후에 주실의 임신 사실을 알고 죄책감²⁶⁾과 회한 속에서도 주실을 ‘작은 마물’로 타자화한다.²⁷⁾ 주실을 자신을 유

25) 위의 책, 50면.

26) 죄책감은 자신이 구속되어 있으며 스스로도 소중하게 여기는 원칙을 위반했을 때 동반되는 감정이다. 어떤 실패에 대한 자기 비난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수치심과 비슷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를 말하기 어렵지만 수치심은 자기 결점에 대한 염려에서, 죄책감은 자신이 범법을 저질렀다는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Sandra Lee Bartky, *Femin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New York: Routledge, 1990, pp.87-88.

27) 이케가미 슌이치는 『마녀와 성녀』에서 중세에 만연했던 여성 혐오의 기원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라고 본다. 고대 말기 기독교 교부들은 창세기에 근거를 두고 여성을 원죄의 근원인 이

혹히는 자연, 원시의 상태와 동일시하고 그를 타자화함으로써 금기를 위반한 자신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죄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부끄러운 줄 몰랐던 자신들의 벗은 몸에 대해 부끄러움을 ‘인식’하고 옷을 입는다. 그러므로 송화리라는 자연과 동화되어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주실은 남성 인물들에 의해 문명성을 결격하고 있는 마녀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그를 벌미로 폭력과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실상은 문명 이전의 낙원인 에덴의 가치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²⁸⁾

한편 편지의 수취인은 일혜는 우연한 기회에 성삼의 소개로 알게된 미술을 전공한 여대생이다. 일혜는 양친이 없다. 육이오 때 아버지와, 언니인 신혜의 남편이 납북되고 이로 인해 어머니가 신병으로 사망한 뒤 일혜는 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일혜는 여름 방학을 맞아 혼자 송화리로 내려가는 영재에게 자신 또한 대천에 가서 분풀이로 실컷 놀며 “좋은 보이프렌드라도”²⁹⁾ 만든했다고 말하는 ‘아프레 걸(after-girl)’이다. 인용에서처럼 영재는 문명과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여자인 일혜를 통해 자신을 “원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마력을 지닌” 숨막히는 자연,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자신의 그릇된 생식본능을 정화하고자 한다. 문명화된 도시의 여성을 통해 자연의 원시성과 그러한 자연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력감에서 기인하는 공포로부터 회복하려고 하며, 반대의 논리로 야생의 마력을 대표하는 주실을 훼손함으로써 그러한 공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브의 후손으로 죄악시하였고, 따라서 그들이 속죄의 의미로 복종과 임신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여성멸시 사상은 이후 중세 성직자와 수도자들에게 전해졌다. 이케가미 슌이치, 김성기 역, 『마녀와 성녀』, 창해, 2005, 111~118면. 『노을 진 들녘』에서 현대의 이브로 형상화된 주실이 영재와 성삼에 의해 임신과 복종의 고통을 강요 받는 것 역시 이러한 여성의 역사와 부합한다. 이 점에서 주실은 여성 수난의 역사와 현실을 드러내는 희생양으로서의 마녀를 연상시키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28) 서여진,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87-90면.

29) 박경리, 『노을진 들녘』, 앞의 책, 31면.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작품에서 도시의 여성인 일혜와 야생의 주실이 하나의 짝패처럼 엮여있다는 점이다. 상경한 영재를 방문한 일혜가 오랜 지색 드레스에 빨간 샌들 차림을 함으로써 영재로부터 주실의 수영복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나, 영재 스스로가 일혜의 성격을 폄평하면서 바보도 곤란하지만 너무 똑똑한 것도 따분하다며 주실과 일혜를 견주어 보는 대목 등은 영재의 마음 속에서 주실과 일혜가 짝패를 이루며 각각 자연과 도시, 원시와 문명을 상징하는 대상임을 암시한다. 결국 영재는 도시 여성의 전형인 일혜와 야생의 여성인 주실 모두를 소외시키고 Y대학의 의학도인 홍수명과 사랑하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3. 가부장의 폭력성과 여성 거래의 공식

자연과 문명, 근대화와 보수화 사이에서 분열된 남성의 모습은 비단 영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자식들을 빼앗아간 문명을 원흉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재의 외조부 송정주 또한 마찬가지다. 송정주는 자식을 잃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주실을 송화리라는 자연 속에 가두고 문명과의 접촉 또한 차단한 극단적인 인물이다. 주실의 외조모가 살아있을 때는 주실을 공부시키려 애썼지만 그마저도 송 노인에 의해 가로막히고, 그 결과로 주실은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채 송 노인의 표현에 따르면 ‘짐승’ 같고, ‘수목’ 같은, “한 마리의 눈먼 송아지”³⁰⁾이자 “잔인한 성삼의 조종 앞에 엎드리는 한 마리의 말 없는 개”³¹⁾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만다.

문명과의 접촉을 차단한 채 주실을 자연 속에 가두어버린 송 노인의 모습은 얼핏 자연을 타자화하려는 영재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으로 보일

30) 위의 책, 335면.

31) 위의 책, 341면.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송 노인은 대학에서 농과를 전공한 엘리트 출신으로, 부모가 남긴 가산을 팔아 아내와 함께 송화리로 내려와 과수원을 조성해 정착한 도시 출신이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기는 하지만 “일은 빠 빠지게 시키고 노임에는 인색지 않아야 한다”³²⁾는 신념을 가진 그는 자본과 학식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사실상의 영주(領主)처럼 지내온 인물이다.³³⁾ 그는 또한 주실이 영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주실을 ‘천하의 탕녀’ 취급하며 집안의 오점을 가리기 위해 성삼과 혼인시키는 장본인이다. 결과적으로 송 노인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주실을 억압하고 도구로 이용하는 폭력적 가부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을 타자화하고 도구화하는 영재와 다를 바 없다. 자신의 의지와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자연(=주실)’을 타자화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것이 영재라면 송 노인은 송화리라는 자연의 공간을 이상화하고 그곳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의 주체성을 박탈한 장본인인 것이다. 자연을 기피하는 영재와 자연을 신비화하는 송 노인의 태도는 양극단에 있지만 자연을 타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자연과 가장 가까운 상태의 주실은 두 인물 모두에게 있어 타자화되고 주체됨의 근원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 부끄러움(수치심)이 없는 백치와도 같은 상태로 머물게 된다.³⁴⁾

주실이라는 여성 타자에 대한 영재와 송 노인의 이와 같은 억압은 전

32) 위의 책, 336면.

33) 송화리가 송노인의 억압과 폭력이 자행되는 공간이라는 점은 김주리 또한 지적한 바 있다. 김주리, 앞의 논문, 19면.

34) 조르쥬 아감벤(Giorgio Agamben),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161면. 아감벤에 의하면 부끄러움(수치심)은 ‘노예 됨과 주인 됨’이라는 상반된 의미에서 주체됨의 근본적인 감정이다. 부끄러움은 주체화와 탈주체화, 즉 자기를 갖춤과 잃음, 주인 됨과 노예 됨이 공존해야만 산출될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끄러움(수치심)은 여성을 억압하는 또 다른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후술하겠지만 주실은 이러한 부끄러움(수치심)이 부재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생존 가능한 존재가 되며 이러한 인물은 『김약국의 딸들』의 넷째 딸, ‘용란’에게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후 국가재건의 과정에서 근대국가의 성립을 위해 근대화와 문명화를 꾀하는 한편으로, 전통적 가치를 강요했던 국가 이데올로기에 유비될 수 있다. 전후 한국 사회는 도시 중심의 미국적 근대화와 이러한 미국적 근대성에 반발하는 농촌의 재전통화가 재건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이 시기는 도시 중심의 '축소된 가족주의와 확대된 가족주의의 동시적 발전'을 축으로 '가족주의'를 근대적으로 재편하고, 근대적인 자원의 투입을 도시로 집중시켰으며 신문, 잡지, 라디오방송, 영화 등 근대적이고 미국적인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미국적 근대성에 반발하는 농촌의 재전통화 또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후의 근대화는 반근대화 내지 재전통화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과정이었다.³⁵⁾ 주실을 강간한 뒤 서울로 올라와 일혜와 함께 다방, 카페, 호텔 등을 전전하며 죄책감을 씻으려 하는 영재와 주실에게 문명을 해악으로 인식하게 하고, 전통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송 노인은 전후 한국의 기이한 근대화 과정과 닮아 있는 것이다.

한편 성삼은 주실의 임신을 빌미로 송화리에 내려와 하인 신세였던 자신의 울분을 해소하려 한다. 송화리 과수원의 일을 보아 온 김판수의 아들인 성삼은 아버지가 죽은 후 어머니 김서방댁과 함께 송 노인의 비호 아래 살면서 모 삼류대학 법학과에 입학은 했으나 연극이니 시나리오니 하며 서울의 다방을 순례하는 건달 대학생이다. 성삼의 어머니 김서방댁은 술집 작부 출신으로 송 노인을 유혹하려다 거부당하고 송 노인이 휘두른 채찍을 맞고 쫓겨나다 이것이 아들 성삼에게 목격되자 송 노인이 자신을 겁탈하려다 상처를 낸 것이라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삼은 어린 시절부터 영재와 주실에게 하인과 같은 취급을 받아 왔던 울분과 자신의 어머니를 학대한 송 노인에 대한 증오가 복합된 분노를 송

35)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300~301면,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겔(전후 여성)”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78-179면에서 재인용.

씨 가문의 유일한 후손인 주실의 몸을 훼손함으로써 치유받으려 한다. 성삼의 이와 같은 분노가 실현 가능하게 된 데에는 가부장인 송 노인의 추문으로부터 가문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과 성삼의 신분과 땅에 대한 욕망이 공모한 데 있다. 영재와 성삼에게 폭력을 당한 후 실어증을 앓게 된 주실의 태기가 성삼으로 인한 것이라 오해했던 송 노인이 주실의 임신이 영재로 인한 것임을 안 이후에도 성삼을 사위로 맞기 때문이다.

모든 사실을 발설했음에도 집안의 비밀을 감추기에 급급한 송 노인의 약점을 쥐게 된 성삼의 패악은 극에 달한다. 성삼은 아이를 지우려 언덕에서 뛰어내리기를 반복하는 주실을 잡아 강간하고 과수원의 주인자리를 탐한다. 그러나 자신을 주인 취급하지 않는 일꾼들과 입을 닫아버린 주실에게 분노한 성삼은 과수원을 팔아버리고, 서울에서 영화를 제작하려던 계획까지 수포로 돌아가자 주실을 더욱 가혹하게 학대한다.

송 노인은 발소리를 죽이며 불빛이 새어나오는 아들 방의 창 밑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커튼이 드리워진 방 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음, 으으음…….”

쥐어짜는 듯한 신음 소리가 송 노인의 귓전을 쳤다. 송노인은 한발 뒤로 물러섰다.

“으으흥…… 으흥흥흥…….”

물러섰으나 쥐어짜는 듯한 신음 소리는 여전히 따라왔다. 분명히 주실의 신음이다.

“망할 기집애! 죽여버린다, 죽여버려! 너까짓 것 귀신도 모르게 죽여버린단 말이야. ㅎㅎㅎ…….”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의 독특한 웃음이 나직이 새어 나왔다. 그리고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획, 휘익! 바람을 끊는 듯한 소리가 이슴푸레 들려왔다. 그때마다 쥐어 짜는 듯한 주실의 신음이 높아진다.

“너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때렸지. 개짐승처럼 말이야. 나도 너 할아버

처럼 이렇게 너를 때려준다! 때려준다! 이 의문스런 병어리, 병어리앗! 언제까지나 병어리 놀음이야!”

성삼은 낮은 소리로 악을 쓰다가 또 웃었다.

“그러나 얼굴하고 배는 이렇게 소중히 모셔놓는단 말이야. 얼굴이 찌그러졌어야 성삼이 색시 될 자격이 없어지지. 그리고 그의 죄의 씨는 기필코 받아내야 하거든.”

...(중략)...

송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나뭇그려진 껌짝을 끌고 와서 디디고 올라섰다.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안개처럼 아스름했다. 그 속에,

“앗!”

무서운 광경이다.

거의 반나체가 된 주실은 입에 수건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 가죽 끈으로 후려치고 있는 성삼의 무서운 눈. 사람이 아니다. 야수다. 완전히 미친 개의 눈이다.

“너의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때렸지! 짐승처럼 말이야. 나도 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이렇게 때려 준다! 때려 준다! 말을 해! 아가리를 열란 말이야!”³⁶⁾

인용은 배가 부른 주실에게 성삼이 무참히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성삼은 자신의 매질을 다른 사람에게 이르면 오래비와 통한 주실을 마을 사람들이 잡아가 짚단 속에 묻고 불을 지를 것이라 협박한다. 중세의 마녀가 화형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것처럼 성삼은 주실에게 화형의 공포를 심으며 피해자를 오히려 죄인으로 둔갑시킨다. 그러면서 성삼은 끊임없이 자신의 폭력이 송 노인이 어머니에게 행했던 폭력에 대한 되갚음인 것을 강조한다. 폭력의 순간 성삼은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신 또한 피해자가 된다. 이는 악을 수행하면서도 자신을 확대받는 무고한 사람들과 동일시 하는 새디스트의 모습과 같다.³⁷⁾ 또한 이는 주실을 학

36) 박경리, 『노을진 들녘』, 앞의 책, 338-339면.

대함으로써 송 노인과 영재에게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과시적 태도이기도 하다. 주실에 대한 폭력으로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는 성삼의 태도는 송 노인의 핏줄인 주실에 대한 폭력이자 주실이 잉태한 영재의 아이에 대한 폭력이 겹쳐진다는 점에서 송 노인과 영재 모두에 대해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낸시 초도로우가 말한 ‘남성성의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남성들의 여성혐오적 폭력은 남성성(masculinity)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기제다.³⁸⁾ 자신이 남성 사회에서 여성과 같은 나약한 위치에 고착될지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강한 남성임을 확인하려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물리적인 힘-몸을 이용하는 것이다. 과도한 남성성의 물리적 발현을 통해 남자다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 즉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남성성을 수행함으로써 남성은 분열된 자아에 대한 통합을 시도한다. 그러나 문제는 나쁜 대상-타자 또한 주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혐오적 폭력은 주체 안에 분열된 자아의 한 부분에 대한 공격이 되고만다는 데 있다. 결국 여성-타자에 대한 공격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공격과 같은 것이 되고 폭력을 통해 남성은 반복적으로 ‘사내다움’을 확인받으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보증되지 않은 채 폭력만이 반복되고 자아는 분열된다.³⁹⁾

37)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김치수·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11, 263면. 이해경은 성삼이 신분으로 인해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악의 전형이라고 보고, 송 노인, 영재, 주실에 대한 성삼의 개인적 감정이 물질적 욕망으로 전이하면서 그러한 물질적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주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해경, 앞의 논문, 330면.

38) Chodorow, N. J., "The Enemy Outside: Thoughts on the Psychodynamics of Extreme Violence with Special Attention to Men and Masculinity", Judith K. Gardiner (ed.), *Masculinity Studies and Feminist Theory: New Direc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p.235.

39) Chodorow, N. J., *Individualizing Gender and Sexuality*, New York: Routledge, 2011. 이나영, 허민숙,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 담론과 실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가족과 문화』 26(4), 한국가족학회, 2014, 74면에서 재인용.

(가) 어떻게 보면 성삼은 좀 고독한 것 같기도 했다.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성격 탓이지만 성삼에게 있어서는 옛날부터 이 고장의 산천과 인간들이 모두 자기를 배척하고 있다는 자의식이 깊이 뿌리 박고 있었다. 비천한 그의 어머니로 인한 열등감도 적잖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 자신이 어머니를 경멸할수록 남이 경멸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는 자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수심과 까닭없는 조롱, 횡포, 그리하여 고립되어 모든 사람은 그의 적으로서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⁴⁰⁾

(나) 애당초부터 그렇게 잔인한 매질을 주실에게 가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 어머니가 송 노인에게 매맞은 일과 하인의 자식이라는 모멸적인 위치에 대하여 원한이 깊었으나 그는 주실을 사랑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변태적으로 변한 것은 주실의 완강한 침묵의 저항과 임신한 배에 원인이 있었다. 시초에는 조롱과 위협의 말로써 주실을 괴롭히려 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주실이 괴로움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다. 뺨을 하나 때리고 쥐어박고 하던 것이 어느새 심한 매질로 변해갔다. 새로운 자극을 구한 것이다. 복수심과 애정이 절반씩 섞인 행동이었다.⁴¹⁾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한 복수심에서 조롱과 위협의 말로 시작됐던 성삼의 폭력은 심한 매질로 변한다. 그러나 가혹한 폭력을 가하는 한편으로 성삼은 자신의 주실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믿으며 더욱 분열된다. 주실의 학대받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송 노인이 자살한 뒤, 아이를 사산한 주실이 영재를 찾으러 서울로 상경해 사라져 버리자 성삼은 주실에게 더욱 집착한다. 주실에 대한 분노와 연민 사이를 오가는 이러한 분열의 결과 성삼의 가혹성은 더욱 극으로 치닫고 그는 주실을 납치해 송화리에 가둔 뒤 매질하기에 이른다.

40) 박경리, 『노을진 들녘』, 앞의 책, 331면.

41) 위의 책, 341면.

이러한 상황에서 주실을 강간하고 송화리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윤영재는 송화리로 돌아와 성삼을 불러낸 뒤 그를 끌어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한다. 이때 영재가 성삼을 꺾어내는 수단은 송 노인의 유산과 주실의 몸을 등가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 거래가 중요한 이유는 송 노인이 가족의 오명을 씻기 위해 성삼과 주실의 몸을 거래했던 것과 윤영재의 방식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거래의 양상은 주실이라는 여성의 몸을 매개로 하여 남성중심의 친족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성들의 전형적인 여성거래 방식을 보여준다.⁴²⁾ 그러나 주실에게 각자의 방식으로 폭력을 가한 남성 가족이 모두 죽음을 맞음으로써 결국 이러한 남성 간 계약의 고리가 끊어지고 오직 주실만이 살아남는다. 주실을 ‘마물’, 혹은 ‘탕녀’라 비난하며 유혹의 죄를 덮어 씌운 영재나 송 노인, 어머니가 받은 학대를 주실에게 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주려 했던 성삼 모두 죽음이라는 처벌을 받지만, 열차 사고 속에서 홀로 살아남았듯이 이번에도 주실만이 생존한다.

4. 타자화된 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재생

사촌에게 강간당한 뒤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조부의 손에 의해 성삼이라는 인물에게 거래되어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던 주실은 스스로 송화리를 벗어남으로써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난다. 백치에 가까운 주실의 생존 본능이 그를 송화리로부터 탈출하도록 이끈 것이다. 이때 가출을 감행한 주실을 구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일혜의 언니 강신혜다. 강신혜는 전쟁 때 아버지와 남편이 납북되고 어머니마저 사망한 후 어린 일혜를 데리고 유산을 정리해 요정을 경영하는 화려한 외모와 담대한 성격의 인물이다.

42) 게일 루빈(Gayle Rubin), 신혜수 외 역, 「여성거래」, 『일탈』, 현실문화, 2015, 91~147면.

신혜는 4·19 이후 요정을 폐업하고 다방 '여정'을 운영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이다. 신혜가 요정을 폐업한 이유는 4·19 이후의 혁명의 분위기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보다는 정권이 무너지자 깔아 놓은 외상을 거둘 일이 막막해진 생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⁴³⁾

신혜는 피서차 해운대로 내려갔다가 동행했던 남자를 버리고 올라오는 길에 송 노인이 죽은 후, 아이를 사산한 뒤 가출한 주실을 서울역에서 만나 그가 유괴될 위기에서 구해 데려온다. 매혹적이지만 짐과 주소를 모두 잃어버린 백치 같은 주실이 도로 시골로 내려가라는 신혜의 충고에 발끈 하자 신혜가 주실을 진토 속에 묻힌 옥이라 생각하며 사춘 오빠를 찾을 때까지 자신과 지낼 것을 권한 것이다. 호구조사를 통해 주실이 침모까지 있는 양가집의 자식이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알아낸 신혜는 처음에는 주실을 새로 경영하게 된 다방 여정에 두려 계획한다. 그러나 동생 일혜가 영재로부터 육체만을 착취당하면서도 마음을 잡지 못해 방황하던 차에 주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신의 예술이라 경탄하며 기쁨을 되찾자 두 자매가 모두 주실을 곁에 두고 돌보기로 한 것이다.

일혜, 신혜 자매와 함께 주실을 돌보는 또 한 사람은 신혜의 다방 여정의 마담인 민경희 여사다. 민경희는 윤영재의 아버지인 윤현국의 친구 임변호사의 소위 '세컨드'로 첩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결혼제도 내의 진입이 불가능한 여자다. 임변호사의 첩이면서 김상호와 연애하던 민경희는 임변호사의 집을 나와 김상호와 동거하지만 김상호가 4·19시위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사망한 뒤 신혜의 권유로 다방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전후 국민국가 만들기의 자장 안에서 국가는 가장이 될만한 이상적 남성상뿐 아니라 그의 파트너가 될 만한 이상적인 여성상 또한 제시하는데 이때의 여성은 아내, 어머니, 딸과 같이 가족 질서 내의 위치를 통해서만 국민의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⁴⁴⁾ 이외에 이상적 가부장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43) 이 작품에는 4·19 혁명의 장면이 직접적으로 그려지고, 영재의 친구인 상호의 경우 시위에 휩쓸려 사망하기까지 하지만 박경리는 이를 영웅화하지 않는다.

여성은 전후파(戰後派)여성의 상징이 되어 전후의 마녀로 타자화 된다.⁴⁵⁾ 또한 이승만 정권이 구상한 국가 경제 재건 계획은 대부분 비료나 시멘트, 철강, 석탄 및 운송 등 남성 인력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은 성별 규범을 넘어서지 않도록 규제했다.⁴⁶⁾ 사회가 규정한 젠더규범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허용된 것이다. 이외에 경제 활동을 위해 거리로 나온 미망인 등의 여성을 사회는 가정과 괴자, 문란한 성행위자로 낙인찍고 미래 사회의 파괴자로 취급했다.⁴⁷⁾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김상호의 죽음 후 임 변호사와 재결합하려는 민경희에게 신혜는 “데데하게 그게 뭐야? 집어치워. 겨우 밥이나 얻어먹고 그따위 시시한 자식하고 산단 말이나? 차라리 그털 바에는 네가 벌어서 살아라. 내가 일자리를 제공하마.”⁴⁸⁾라며 민경희와 공동경영을 제안한 것이다. 신혜라는 새로운 생계 부양자를 중심으로 동생인 일혜와 친구인, 민경희까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남성 가부장이 부재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결국 남성들의 억압과 굴레에서 뛰쳐나온 주실까지 모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주실의 회복과 재생을 돕는 사람들은 전후의 ‘마녀’로 불리며 불온한 존재로 여겨지던 여성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다.⁴⁹⁾ 전후 사회의 악으로 취급되며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이러한 여성 인물들이 사춘의 아이를 임신, 사산하고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 주실을 거두는 서사는 허무를 벗어나기 위해 어떠한 의지나 목적 없이 4·19

44) 박찬효, 『한국의 가족과 여성혐오, 1950~2020』, 책과함께, 2020, 21면.

45)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13면.

46) 김미선, 「양장점을 통해 본 전후 1950년대 ‘여성 자영업주’의 탄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38(2), 2021, 12면.

47) 이임하, 앞의 책, 215면.

48) 박경리, 『노을진 들녘』, 앞의 책, 394면.

49) 박경리는 연재가 끝난 뒤 신문에 실은 작가 후기를 통해 애초의 의도와 달리 “자유분방하면 서도 내면세계에 있어서 외곶으로만 달리는 일혜를 뜻하지 않게 좋은 여성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 히기도 했다. 박경리, 「『노을진 들녘』을 끝내고」, 『경향신문』, 1962년 7월 5일.

혁명의 시위대에 휩쓸려 들어가는 엘리트 지식인 청년들인 영재나 그 친구인 상호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 마녀로 타자화될지언정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는 여성들의 연대를 통해 생명을 지속하는 이러한 구도는 혁명을 기점으로 구세대의 몰락과 신세대의 출현을 남-녀의 쌍으로 제시하는 박화성, 최정희와 같은 이전 세대의 해결방식과는 또 다른 결말이며⁵⁰⁾, 또한 손장순 등의 이후 세대의 여성작가들과도 구분된다. 특히 같은 시기 왜소해진 인간 존재를 죽음과 허무로 연관시켰던 손창섭, 장육학 등의 남성작가들과도 다른 박경리만의 독보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노을 진 들녘』은 근대화와 보수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전후 사회에서 제도 바깥의 인물이자 야생의 생명력을 지닌 여성 주인공 주실이 세 명의 가부장으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만, 결국은 전후의 제도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타자화된 여성들의 도움을 통해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여성에게 폭력으로 작용하는 폐쇄된 공간과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가부장 중심 사회의 파괴, 허무에 빠진 남성 중심의 혁명의 실패와 전후 사회의 타자화된 마녀들의 공동체를 통한 여성 연대와 같은 내용은 이 작품을 통속적 대중소설로써만 소비할 수 없게 하는 지점이며 무엇보다 생명력을 상징하는 주실이 자신을 탈바꿈하면서 끝까지 생존하게 된다는 결말은 이후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박경리의 생명 사상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타자화된 여성들의 연대를 통한 생존 서사는 혁명을 기점으로 구세대의 몰락과 신세대의 출현을 제시하는 이전 세대의 여성작가나, 아프레걸의 허

50) 안서현, 「부성적 역사와 극복의 알레고리」,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무와 일탈을 그린 이후의 여성작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후를 관통하는 것이며, 특히 왜소해진 인간 실존의 죽음과 허무로 일관했던 동시기의 남성작가들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전후 문학사 안에서 종종 단독적자적인 존재였던 박경리만의 문학을 문학사의 지형 안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미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경향신문』, 1961.10.20.

『경향신문』, 1961.10.21.

박경리, 「『노을진 들녘』을 끝내고」, 『경향신문』, 1962.7.5.

박경리, 『노을진 들녘』, 마로니에북스, 2013.

2. 단행본

박찬효, 『한국의 가족과 여성혐오, 1950~2020』, 책과함께, 2020.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이케가미 슌이치(池上俊一), 김성기 역, 『마녀와 성녀』, 창해, 2005.

게일 루빈(Gayle Rubin), 신혜수 외 역, 『여성거레』, 『일탈』, 현실문화, 2015.

마사 너스바움(Martha C. Nussbaum),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김치수·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한길사, 2011.

에반젤리아 파파다키(Evangelia Papadaki), 『객체화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점들』, 강은교 외 역, 전기가오리, 2019(2판).

조르주 아감벤(Giorgio Agamben),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Sandra Lee Bartky, *Femin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New York: Routledge, 1990.

3. 논문

강지희, 「4·19혁명의 재현과 여성 시민권의 창출-박경리와 손장순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김양선,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전쟁, 여성, 선정주의는 어떻게 여성문학의 전통이 되었나」, 『여성문학연구』 50,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a.

———, 「멜로드라마와 4·19혁명의 서사적 절합-박경리의 1960년대 대중연애소설 『푸른 운하』, 『노을진 들녘』 다시 읽기」,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b.

———,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 여성문학의 계보 만들기: 한국여성문학사와 여성문학 앤솔로지의 필요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55, 한국여성문학

- 학회, 2022.
- 김은하, 「전후 국가 근대화와 “아프레겔(전후 여성)”표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1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77-209면.
- 김주리, 「195-60년대 여성 장편소설 속 남매 근친상간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0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3.
- 서여진,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 안서현, 「부성적 역사와 극복의 알레고리」,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 윤혜정, 「1960년대 박경리 문학에 나타난 ‘청년-여성’담론 연구-『노을 진 들녘』과 『녹지대』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90,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 이나영, 허민숙,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 담론과 실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가족과 문화』 26(4), 한국가족학회, 2014.
- 이혜경, 「박경리의 『노을 진 들녘』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 『서강인문논총』 44,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조윤아, 「1960년 전후 박경리의 글쓰기에 나타난 역사 의식: 『내 마음은 호수』, 『노을 진 들녘』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9,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2011.
- ,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폭력 희생자들의 원죄의식」, 『인문학연구』 4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 조현설,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1)-남매혼 신화와 근친상간금지의 윤리학」, 『구비문학연구』 11, 한 국구비문학회, 2000.
- Chodorow, N. J., “The Enemy Outside: Thoughts on the Psychodynamics of Extreme Violence with Special Attention to Men and Masculinity”, Judith K. Gardiner (ed.). *Masculinity Studies and Feminist Theory: New Direc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4. 기타자료

- 정종화, 「정종화의 한국영화 진기록 100년-박경리 문학소설의 영화화 퍼레이드」, 『인터뷰365』, 2019.10.02.,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89273>.
- 최향산, 「문학과 영화의 랑데부-박경리 작품의 스크린 파노라마」, 『인터뷰365』, 2008.05.07.,
<https://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
- 황호택, 「국민문학 ‘토지’ 작가 박경리, 행복했다면 문학을 껴안지 않았다」, 『신동아』, 2004-12-24., <https://shindonga.donga.com/culture/article/all/13/104045/1>.

<Abstract>

The Survival of Othered Women and Female Solidarity in Park Kyung-ri's *Noeul-jin Deulnyeok*

Seo, Yeojin

The novel *Noeul-jin Deulnyeok* adheres to the sensational narrative conventions of contemporary popular novels, such as the theme of “incest,” but beneath this storyline lies a subtle yet crucial element of Park Kyung-ri’s philosophy of life’s agency. Set in a postwar society where modernization and conservatism progressed simultaneously, the female protagonist Ju-sil, a figure existing outside institutional norms and embodying untamed vitality, becomes a victim of violence inflicted by three patriarchal figures. Ultimately, however, she regains her vitality through the aid of marginalized women who have also been othered, resisting integration into the postwar institutional framework.

The narrative presents closed spaces oppressive to women, the destruction of an oppressive and violent patriarchal society, and the failure of male-centered revolutions steeped in nihilism. Moreover, the emergence of a community of “witches” who have been othered in postwar society underscores the impossibility of reducing this work to mere mass-market sensational fiction. Above all, the conclusion, in which Ju-sil survives by transforming herself and sustaining her vitality, is significant as it foreshadows Park Kyung-ri’s broader life philosophy, which expands in her later works.

Furthermore, the survival narrative driven by the solidarity of othered women provides a perspective distinct from earlier female writers who

paired the decline of the old generation with the emergence of the new through male-female dynamics, as well as from post-revolution female writers who portrayed the nihilism and deviation of “après-girls.” This narrative also contrasts sharply with the works of contemporary male writers, who predominantly depicted the diminishment of human existence through themes of death and despair.

Such distinctiveness highlights Park Kyung-ri’s unique position in postwar literary history. Her literature, often seen as solitary and exceptional, gains new significance when examined within the broader terrain of literary history, offering a nuanced understanding of her contribution to the postwar literary landscape.

Key words: *Noeul-jin Deulnyeok*, Postwar society, Incest, Traffic in women, the concept of life, Female Solidarity, ‘Witches’ of postwar

투 고 일: 2024년 11월 29일

심 사 일: 2024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1일

수정마감일: 2024년 12월 27일